

새정부 2026년 농식품부 예산 20조 350억 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 원) 증액한 20조 350억 원 규모로 밝힘.

- 농식품부 예산 사상 처음 20조 원 초과*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3) 17조 3,574억 원 → ('24) 18조 3,392억 원 → ('25) 18조 7,416억 원

-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 달성을 지원하고,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음.

- 특히, 기후위기 및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등에 집중 투자

2026년 농식품부 예산안 주요 내용

분야	내용
식량안보·유통구조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작물직불 대폭 확대(2,440억 원→4,196억 원) · 쌀 자조금 신설(29억 원) · 콩 비축 확대(3만 톤→6만 톤) ·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바우처 신규 지원(186억 원) ·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충(223억 원→387억 원)
먹거리 돌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8.7만 가구→16.1만 가구) · 직장인 식비 지원 신설('든든한 한끼' 79억 원) · 초등 저학년 과일간식 지원 재개(169억 원)
농가 소득·세대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형 직불제 대폭 확대(3,201억 원→5,164억 원) · 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대책비 확대 · 청년농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2,500ha→4,200ha)
스마트농업·수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농업 AX[†] 플랫폼 조성(705억 원) · 스마트 솔루션 보급(1,400농가) 및 농식품 R&D 확대(2,267억 원→2,612억 원) · K-푸드 해외거점공관 지정 및 수출바우처 지원 강화(360억 원→720억 원)
농촌 균형발전 및 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1,703억 원, 6개 군·24만 명 대상, 월 15만 원) · 농촌공간 정비 확대(122개소→137개소, 1,045억 원→1,519억 원) · 농촌대청소사업 신규 추진(68억 원) · 농촌 빈집 철거(105억 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5만 명→8만 명)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개선 및 미래세대 교육 지원(26억 원) · 중성화수술 지원 확대 등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79억 원→81억 원) · 펫푸드·펫테크 산업 지원('원-웰페어밸리' 조성 71억 원)

[†] AX (Agricultural Transformation): 단순히 스마트팜 수준을 넘어서 AI·디지털 기반의 농업 전환 생태계 구축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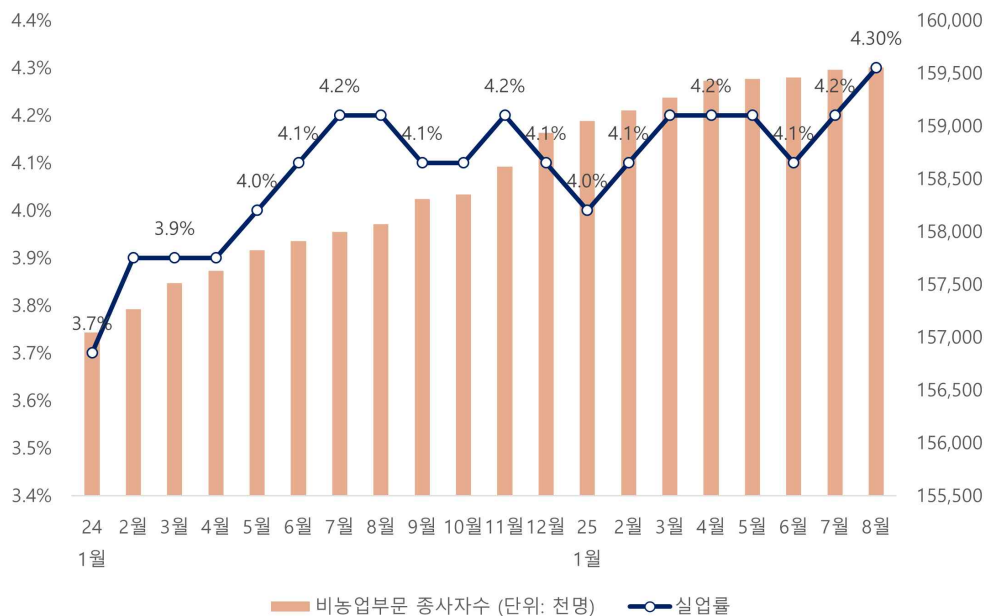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5.09.01)

세계 경제 동향

● 미국, 8월 실업률 4.3% | 2025-09-05 미국 노동통계국

- 2025년 9월 5일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8월 고용 동향(Employment Situation)을 발표하며, 8월 실업률이 4.3%로 전월 대비 0.1%p 상승하였다고 밝힘.
 - 지난 8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종사자 수는 전월 대비 2만 2천명 증가하는데 그치며, 지난 4월 이후 정체 상태를 지속함.
 - 경제활동 참가율은 62.3%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0.4%p 하락함.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함.
- 보건 의료 부문의 8월 고용은 전월 대비 3만 1천명 증가했으며, 이는 이전 12개월 월평균 증가분(4만 2천명)을 하회하는 수준임.
-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8월 고용은 전월 대비 1만 6천명 증가하였으며, 개인·가족서비스 부문 또한 전월 대비 1만 6천명 증가함.
 - 8월 연방 정부 고용은 1만 5천명 감소하였으며, 건설, 운수업, 소매업, 금융서비스 등 나머지 업종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
- 민간 비농업 부문 전체 근로자의 8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p(10센트) 올라 36.53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7%p 상승한 수치임.
- ❖ 미국 개인소비지출(PCE)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가처분소득은 늘어나(주간브리프 Vol.33)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안정화되었다는 판단됨. 이와 함께 미국 고용 시장 둔화가 관찰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커짐.

■ 2024~2025년 8월 미국 비농업부문 종사자수 및 실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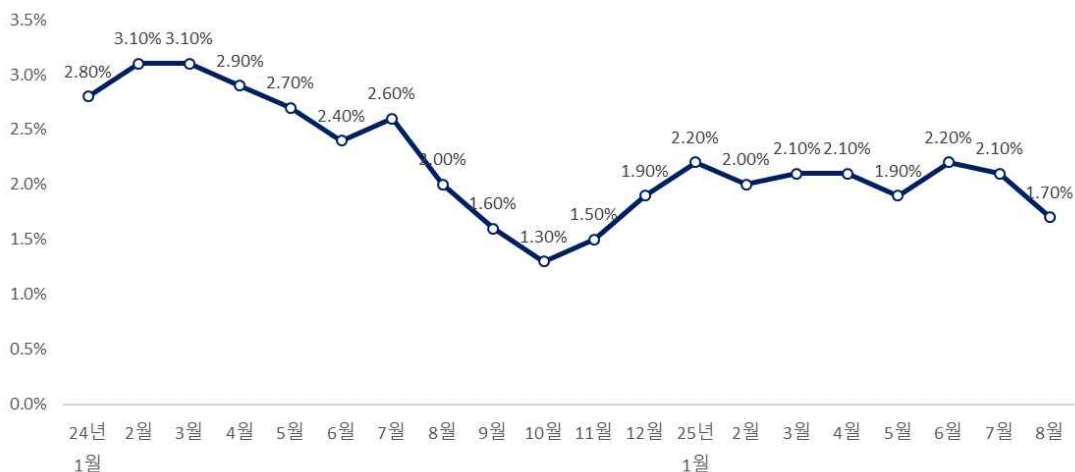


국내 경제 동향

● 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 상승세 둔화 ■ 2025-09-02 통계청; 한국은행

- 2025년 9월 2일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하였다고 발표함.
 - 지난 7월(2.1%)보다 0.4%p 하락하며 상승폭 둔화(주간브리프 Vol. 30)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 전월 대비 0.6% 하락
 -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 전월 대비 0.5% 하락
 -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 전월 대비 7.8% 상승
- 품목 성질별로 농축수산물(4.8%)과 개인서비스(3.1%)의 물가상승률*이 높았으며, 공공서비스(-3.6%) 물가는 하락함.
 - *전년 동월 대비
 - (농축수산물)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함.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1%, 7.5% 상승하여 전체 농축수산물(4.8%) 가격 상승을 주도함.
 - (공업제품)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 하락함.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여 5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함.
 - (개인서비스) 외식과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
- 한국은행은 8월 물가 상승률이 통신요금 인하 등 일시적 요인으로 하락했으며, 9월에는 해당 효과가 사라지며 2% 내외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함.

■ 2024~2025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전년 동월 대비) 추이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일본 농림수산성, 2024년 일본형 직접지불제 집행 실태 발표 ■ 2025-08-29 농림수산성

- 농림수산성은 2024년 일본형 직접지불제 집행 현황을 발표했으며, 해당 제도는 ①다면적 기능 지불 교부금 ② 중산간 지역 직접지불 교부금 ③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 교부금 등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음(주간브리프 2024 Vol.37).

*중산간 지역은 중간농업지역과 산간농업지역을 혼합한 개념으로, 일본 전체 경지면적과 농업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며, 홍수·토사 붕괴 방지 등 다면적 기능을 가짐.

- 중간농업지역: 경지율 20% 미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도시지역 및 산간·평지 농업 지역 제외)와, 도시·평지 농업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지율 20%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 산간농업지역: 임야율 80% 이상, 경지율 1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① (다면적 기능 지불 교부금)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이 적절히 유지·발휘될 수 있도록, 농업인이 조직한 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공동 활동을 지원

② (중산간 지역 직접지불 교부금) 생산 조건이 불리한 중산간 지역의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지원하여 농업 유지와 다면적 기능 확보에 기여

③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 교부금)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농업 활동을 장려하고, 농업인 단체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50% 이상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

- 2024년 집행 실적을 보면, '다면적 기능 지불 교부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산간 지역 직접지불 교부금'과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 교부금'은 2023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일본형 직접지불 실시 현황 ■

구분			내용 및 실시 현황
다면적 기능 지불 교부금	농지 유지 지불 교부금		(내용) 기초적인 수로와 농로의 보전 활동을 지원 (실시 현황) 1,450개 기초자치단체, 농용지 2,329,749ha 지원(전년 대비 1,201ha 감소)
	자원 향상 지불 교부금	지역 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동 활동	(내용) 수로와 농로 등의 보수, 농촌 환경 보전 활동 등을 지원 (실시 현황) 1,330개 기초자치단체, 농용지 2,087,560ha 지원(전년 대비 3,183ha 증가)
		시설 관리 및 보수 활동	(내용) 농업용 시설의 내구성 강화와 장기 사용을 위한 활동 지원 (실시 현황) 940개 기초자치단체, 농용지 806,639ha 지원(전년 대비 9,203ha 증가)
중산간 지역 직접지불 교부금			(실시 현황) 1,003개 기초자치단체, 660,956ha를 지원(전년 대비 1,457ha 증가)
환경보전형 직접지불 교부금			(실시 현황) 894개 기초자치단체, 90,615ha를 지원(전년 대비 4,070ha 증가)

국내 농업·농정 동향

●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 및 추석 성수기 수급 안정 대책 ■ 2025-09-02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함.
 - 전년도에 안정세를 보였던 쌀·축산물 가격의 기저효과, 국제 가격 상승, 집중호우·폭염 등의 영향 반영
- (채소류) 고온 및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으나, 정부 대응에 따라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배추의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공급 여건 양호
 - 무·당근·양배추는 생산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고,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는 생육 양호로 안정적 공급 전망
- (과일류) 폭염으로 출하가 지연되었으나, 생육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추석 성수기 출하량 전망: 사과 5만 4천 톤(전년 대비 6.5% 증가), 배 4만 2천 톤(전년 대비 7.2% 증가)
- (쌀) 원료비 확보 경쟁 심화로 쌀가격 전년 대비 11% 상승
- (축산물) 한우·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기저효과 및 국내산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7.1% 상승함.
 - 한우 가격은 8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
 - 돼지고기 가격은 9월 이후 도축 물량이 증가하면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계란은 수요 증가 및 산지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격 상승
- (가공식품·외식) 가공식품 및 외식 부문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2%, 3.1% 상승함.
 - 팜유·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은 안정세로 추가 인상 압력은 제한적
- 정부는 채소 비축물량 공급, 계약재배·정부양곡 활용, 축산물·계란 공급 확대, 수입 원재료 관세 완화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추석 성수기 수급과 물가 안정을 추진할 계획임.

■ 농축산물 물가 정부 주요 대책 ■

품목/분야	주요 대책
배추·채소류	· 정부 가용물량 3만 5천톤 확보·시장 공급 · 병해충 방제·물관리 등 생육 관리 강화
무·당근·양배추 등	· 생산 증가로 가격 하락 → 소비 촉진 추진
사과·배(과일류)	· 계약재배 물량 공급 · 작황관리 강화
쌀	· 정부 양곡 3만 톤 산지유통업체에 대여 공급 · 대형 유통업체 할인행사(8.1~) 병행
한우·돼지고기	· 추석 성수기 공급량 확대 · 자조금·유통업체 협업 할인행사 추진 · 돼지고기 원료육(1만 톤) 조기 도입 독려
계란	· 양계농협 통한 공급 확대 · 대형마트·유통단체 협업 할인행사 실시
가공식품·외식	·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13개 → 21개) ·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1,265억 원)·외식업체 식재료구매자금(5억 원) 지원 · 가공·유통업체 협업 할인행사 ·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2만 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 원 할인, 총 650억 원 규모)
추가 계획	· 추석 성수품 공급대책 및 대규모 할인지원 방안 추진 · 연내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